

■ [공통: 문학·독서]

01. ② 02. ⑤ 03. ①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③ 10. ②  
11. ⑤ 12. ⑤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① 18. ③ 19. ③ 20. ②  
21. ④ 22. ① 23. ④ 24. ④ 25. ③ 26. ⑤ 27. ⑤ 28. ② 29. ① 30. ③  
31. ⑤ 32. ④ 33. ⑤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서의 목적과 가치

**지문해설** : 이 글은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들이 서가 앞에 선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독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독서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또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주제]**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문제 해결의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하는 독서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가 앞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를 묻고 있다. 2문단에서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은 이유가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

찾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 2. 읽기 방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독서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과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비판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독서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책을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하여 관점을 재구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를 하면서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도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반응은 적절하다.

##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독서 기록장’에서 ‘나’는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자신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 즉 ‘자기 성찰의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학생은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

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 노력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제시된 ‘독서 기록장’에는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거나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라고 한 데에서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시된 ‘독서 기록장’의 내용에서 독서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나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4~9] 주제 통합

#### [4~9] 인문,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지문해설 : (가)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따르는 변증법에 대해 설명하고,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던 헤겔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며, 이들 셋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예술·종교·철학은 이념을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헤겔은 이러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주제]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서의 절대정신과 예술

지문해설 : (나)는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엄밀하고도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헤겔은 변증법 모델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

---

을 추가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주제]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 간 불일치에 대한 비판

####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변증법의 체계에 충실하고자 할 때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에서는 예술을 철학보다 인식 수준이 낮은 절대정신으로 보고, (나)에서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와 (나)가 변증법 자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를 살펴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가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로 예술·종교·철학을 제시하고, 각각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라는 지성이라고 하였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이 각각 직관·표상·사유라는 인식 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 이러한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의 인식 대상이 각각 예술, 종교, 철학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

---

나는 방식은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림을 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관의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의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있을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나)의 글쓴이는 ㉠의 논리적 구조에서와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종합의 범주가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가 서로 대립한다고 본 것이다. ②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의 변증법적 종합은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두 대립적 범주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 8. 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해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고 말하면서 헤겔의 미학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헤겔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이론적으로는 예술이 직관의 외면성에 대응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정답 ②

**[오답피하기]** ㉠ <보기>에서 헤겔은 인생의 완숙기에 쓰여진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에 대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예술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을 잘 드러냈음을 헤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보기>의 헤겔의 말에 대해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이론에 대해 예술이 이론에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보기>에 언급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처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킨 작품은 재객관화된 단계로 볼 것이므로 <보기>의 헤겔의 말을 듣고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

을 지닐 것이라고 이해하여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헤겔은 예술을 절대 정신의 한 형태로 보았고,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한 헤겔의 말을 듣고 (나)의 글쓴이가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귀결되다’는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의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포착하다’는 ‘꼭 붙잡다,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긴다.’라는 뜻으로,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10~13] 독서

### [10-13]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즉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모순을 지적한 트리핀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달러화의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한 트리핀 교수의 지적처럼,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 이유를 기축 통화와 환율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 계속된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

## 10.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이 어떤 전망을 하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으며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기존의 금 본위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던 금에 달러화가 추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실제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 결과,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라는 진술을 통해 ‘평가 절상’이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을 통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달러화가 금과 함께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으며, 금 1온스와 35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일정 금액의 마르크화에 대응하는 달러화의 금액이 기존에 비해 더 커지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2문단에서 언급한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금 태환 조항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가 단행되었으므로 고평가된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달러화의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

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하에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된 트리핀 딜레마 상황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금 1온스당 35달러를 맞교환해 주어야 하는 금 태환 조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금뿐만 아니라 이를 맞교환할 수 있는 달러화가 늘어나 국제 유동성의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일정 정도까지의 금의 생산량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미국의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교차 환율’이란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세 국가가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두 국가 간의 교차 환율이 존재하며 가짓수는 1이다. 한편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1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기 때문에 국가 간 통화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세 국가를 A, B, C라고 할 때 A-B, A-C, B-C 국가 사이에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금 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한다. ㉠의 붕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수에 변함이 없고 기축 통화가 여전히 달러화이므로 교차 환율의 가짓수에도 차이가 없다. ③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금의 가치에 고정되며, 이에 따라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도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제한된 상황에서 ㉠에서 ㉡으로 바뀐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의 내용을 통해,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세 국가의 합의에 의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하였다.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이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에 비해 작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이후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가 합의 이전보다 낮아져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국가 간 환율에 의해 B국에 대한 C국의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어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A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의 공급이 줄어든 것이므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A, B, C국의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의 가치는 평가 절하, 즉 하락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보기>에서 세 국가의 합의 결과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하였다. C국 통화의 환율은 B국 통화의 환율에 비해 적게 하락하였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합의 이전보다 상승했을 것이다. ⑤ 3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교역 상대국과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면 그 국가는 교역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낮춰 교역 상대국의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국의 B국에 대한 경상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낮추어, B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켜야 한다.

[14~17] 독서

---

#### [14-17] 기술, 운전자에게 차량 주위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운전자가 자동차 내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주변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서도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왜곡은 촬영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도 없어야 하므로 왜곡이 보정되면 보정된 영상의 점들과 이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 원근 효과를 제거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2차원 영상을 만드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얻은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여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주제] 차량 주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으로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왜곡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② 2문단에서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아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③ 3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왜곡 보정이 끝난 영상을 2차원으로 시점 변환해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즉, 왜곡을 먼저 보정한 후 그 영상들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카메라는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점들을 실세계 격자판에 대응시킨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은 2차원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렌즈 고유의 곡률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 영상을 의미한다. ㉡은 왜곡 모델이나 실세계 격자판과의 비교를 통해 ㉠에 발생한 왜곡을 보정한 영상을 의미한다. 3문단에서 '왜곡 보정이 끝나면'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물체가 작게 나타나는 원근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시점 변환 이전의 영상인 ㉠과 ㉡은 모두 같은 크기의 물체일지라도 멀수록 작게 보이는 원근 효과가 나타나는 영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에서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게 보일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2문단에서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즈 고유의 곡률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상의 왜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은 ㉠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보정하여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의 시야각은 ㉡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2문단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즉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나타나는 휘어짐이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은 ㉠을 보정한 ㉡에서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를 보정한 영상이다. 격자판의 위치 변화는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아내 왜곡을 보정할 때 이용되는 것이므로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인다. 그러나 시점을 변환하여 원근 효과가 제거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면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으므로 물체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같게 나타난다. <보기>의 그림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그림이므로, 전진 방향을 고려할 때 A는 B보다 차량의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고 크기는 작은 도형이다. 따라서 시점을 변환하기 이전의 영상에서는 카메라로부터 B보다 멀리 있는 A가 <보기>의 그림보다 작게 나타났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보기>의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본 시점의 영상이므로 원근 효과가

제된 것이다. 따라서 C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영상에서는 차량의 카메라 렌즈에서 먼 윗변이 짧게 보이므로 윗변이 아랫변보다 짧은 사다리꼴 모양일 것이다. ② <보기>의 그림은 원근 효과가 제거된 것이므로 시점 변환 이후의 영상이다. 따라서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는 차량의 카메라 렌즈에서 가까운 D가 C보다 더 크게 보일 것이다. ③ A와 B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모든 점들과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⑤ <보기>에서 A는 바닥에 그려진 도형이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p는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따라서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 A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의 ‘지나다’는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교차로를 지나고’의 ‘지나다’가 문맥상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⑤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3] 문학

[18-23] 갈래복합 - (가) 이육사, ‘초가’ / (나) 김관식, ‘거산호 2’ / (다) 이육, ‘담초 (談艸)’

**지문해설** : (가)는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힌 작품으로, 이 창작 장소에서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묘사한 후, 이제는 낡고 닳은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여 준다. 그 그림은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 그림으로, 화자가 고향을 떠난 오랜 세월을 고려할 때 이 그림 조각들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인상들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날의 보리밭 정경과 나물 캐고 그네를 타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돈 벌러 향구로 나간 젊은이들 이야기, 힘겨운 노동에도 풍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 등을 보여 준 후, 강물조차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풍경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지문해설** : (나)는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산을 인간과 대비하고,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들을 떠올린다.

---

그리고 산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곳으로 인식하며,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상화된 산의 모습에는 자연을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자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지문해설 :** (다)는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 받아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졸렬함에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위치하는 공간과의 거리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어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주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 18.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이 친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는 반면 소원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연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지만 그 실마리가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에서 화자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인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함께 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도 역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 (다)는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나)에서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장소에 대한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는 1문단에 자연과 교감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가)의 [C]에서 ‘그넛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는, ‘그넛줄’을 매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내리는 비에서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속신(俗信)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 행의 ‘씨레나무’는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앞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이육사는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A]에서 보듯이, 작품에는 그곳이 ‘구겨진 하늘’ 아래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으로 나타나 있다. ‘구겨진’,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등은 ‘유폐된’ 장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시어들로 볼 수 있다. ② [B]에서는 ‘보리밭’,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 ‘종달새 소리’ 등으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봄날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말매나물’은 봄에 낮은 지대의 밭이나 들에서 자라는 ‘말냉이’의 방언이다. ④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 애써 지은 농사에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실이,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 현실 너머의 세계(‘북극’)를 꿈꾸는 소년(‘곰처럼 어린 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에 나타난 삭막한 겨울 이미지는 <보기>에 제시된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20.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산’을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덕성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4행에서 보듯이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태고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산을 대비하고 있다.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9~11행에서 화자는 ‘산’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 놓는’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화자가 ‘그(산)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라고 한 데에서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2~15행의 ‘그리운’, ‘그리며’, ‘그리며 산다’ 등의 시어에서 ‘산’이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⑤ 7행에서 보듯이 ‘산’은 화자가 ‘본시’ 사랑하는 대상이며, 8행에서 보듯이 ‘평생’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에 화자는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으며, ‘꿈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즉 화자에게 ‘산’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

재이다.

## 21. 작가의 관점 및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의 우열 또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견주어 보면서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꽃의 쓰임새에 기준을 두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범상한 화초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가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③ ‘나’는 ‘날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풀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달리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연에서 ‘묵화’와 ‘박쥐 나래’는 어둠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묵화’ 자체가 먹으로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린 묵화’는 ‘솜이 쳐’ 있어서 어둡고 낡았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에는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가는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 연결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복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9행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연부터 이어지는 ‘묵화’의 ‘그림 조각’들을 당대의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서 ‘복창’을 통해 보이는 ‘산’이 절망적 상황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저승의 밤’은 ‘이승의 낮’과 함께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산’을 말하는 맥락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③ (가)에서 ‘고향’을 그린 ‘솜이 친 ‘묵화’는 오래 세월이 흘러 낡고 헌 그림이다. 그러므로 ‘솜이 쳐’는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

자는 ‘오늘’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이는 ‘장거리’ 등지게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보듯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는 ‘오늘’을 시점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④(가)의 1, 2연에 의하면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린 묵화’의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이다. 그것은 화자가 분절하여 제시한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낡고 닳아 부분적으로만 떠오르는 ‘조각’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고향’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산’은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하여 아늑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⑤(가)의 2~3연에는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가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다는 내용이 있다.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이 역시 ‘묵화’에 그려진 ‘그림 조각’의 일부이다. ‘모매꽃’은 ‘메꽃’의 방언으로 옅은 붉은색을 띠는 들꽃이다. 그러므로 ‘모매꽃’을 통해 ‘가시내’들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겸허한 덕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 시어이므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그 속성을 고려할 때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젊은이들은 피폐한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객지로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젊은이들이 탄 ‘뗏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므로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장거리’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서는 거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거리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져 여물로 쓰이는 것인 반면, ‘나비’가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가 다투어 찾는 것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기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4~27] 문학

[24~27] 현대 소설 - 윤희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 '김달채 씨'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친구에게 받은 우산으로 인해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김달채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과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권력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달채는 친구로부터 우산을 얻는데,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는 우산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일부러 사람들에게 우산 케이스를 노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것을 즐긴다. 하지만 우산을 무전기로 보게 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좌절되자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주제]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과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 비판

2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김달채는 사람들이 무전기 모양의 우산과 그것을 지닌 자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산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다. 따라서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김달채의 의도적인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중심인물인 김달채는 자신이 지닌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우산의 케이스를 살짝 보여 주는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시위 현장 이외에 공간의 이동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중심인물인 김달채의 내면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김달채의 행동들이 나타나 있으므로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김달채가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행동들이 서술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25.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김달채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에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행인들이 달아나는 방향과 정반대 편인 시위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김달채는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우산이 필요하지 않은 청명한 가을날에도 우산을 지니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므로 그가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김달채가 사람들에게 보여 준 것은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와 모양이 비슷한 우산 케이스였다. ④ 김달채가 시위 현장에서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나섰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가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

---

러선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⑤ 김달채는 닭장차에 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이나 들어가라는 사복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여 돌아서고 있으므로 그가 닭장차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2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게 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김달채는 우산이 들어 있는 케이스의 생김새로 인해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 즉 무전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② 김달채는 사람들이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잘못 보고 자신에게 겁을 먹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케이스를 노골적으로 보여 주는 대신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준다. ③ 김달채가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얻어낸 결론이 제시된 부분에서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우산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김달채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여 자신에게 겁을 먹는다고 판단한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김달채는 자신을 권력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후 비표를 단 사복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여 돌아선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는 타산적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달채가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다는 설명이나 그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김달채는 무전기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데, 이는 무전기로 상징되는 권력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김달채는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포장마차집 주인은 무전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진 김달채를 권력을 지닌 인물로 오인하여 저 자세를 취하며 술값을 받지 않는다. 이는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김달채는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으며, 잠바를 입고,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는 등 외양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자신이 권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해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김달채는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에게 목청을 높여 항의한다. 이는 우산 케이스를 이용해 자신을 권력을 지닌 인물로 오인하게 만들었던 때의 경험들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28~31] 문학

[28-3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박태보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인 박태보가 주인공인 소설로, 국문 필사본으로 전하며 이본으로는 필사본 「박한림전(朴翰林傳)」이 있다. 작품 속의 사건들은 『정재집』, 『속종실록』 등에도 나타나 있는데, 실존 인물의 삶과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역사 소설의 성격을 가진다. 임금과 신하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도 직간을 통해 임금의 불의한 면을 적극적으로 공박하는 박태보와 자신의 권위가 능욕당했다며 노여워하는 임금의 팽팽한 대립을 서사화함으로써 소설적인 흥미를 더하였다.

**[주제]** 죽음 앞에서도 임금에게 충간을 아끼지 않은 충신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삶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박태보가 정배를 간 후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부인은 학 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되는데, 이것은 상의 하교로 이루어진 것이지 태보가 자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③ 대감은 박태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과천으로 가서 초종례를 극진히 한 후에, 박태보의 주검을 염습하여 집으로 옮겨 왔다. 따라서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지낸 것이 아니다. ④ 상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였으나, 아이들이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⑤ 형조 판서는 박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감 직계를 올렸다.

2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금부'는 박태보가 상의 명령으로 형옥에서 옮겨 와 갇히게 된 곳이다. 임금의 명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박태보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만조백관과 장안 백성이 박태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으므로 임금의 권위가 실현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 곳'은 임금이 자신을 풍자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애연함을 느끼게 되는 곳이므로 임금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도'는 임금이 박태보를 정배 보낸 곳이므로 박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이 민 중전을 내친 곳이므로 민 중전이 거쳐해야 하는 곳이다.

③ ‘이화촌’은 꿈에서 깨어난 부인이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 나간 곳이면서, 하인이 전해 준 박태보의 편지를 대감 부부와 부인이 받게 되는 곳이다. ④ ‘과천’은 박태보가 정배지인 진도로 가던 중에 머물다 숨을 거두게 되는 곳이면서, ‘이화촌’에 있던 대감이 박태보의 편지를 받고 향하는 곳이다. ⑤ ‘심산궁곡’은 아이들이 부른 노래 속에 나오는 곳으로, 백성들이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고 한 곳이고 ‘성내 성외’는 임금이 순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백성들이 임금을 피하려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 30.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해설 :** [A]는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한 말로, 죽음 앞에서도 충(忠)을 잃지 않는 박태보의 강직함을 칭송한 것이다. [B]는 박태보가 생가 친척과 양가 제족에게 한 말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언급된 박태보의 강직함이 [B]에 나타난 박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박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이 나타나 있으나, [B]에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박태보의 자책이 들어 있지 않다. ② [B]에 박태보가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삶을 도모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박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B]에서 그 상처가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는 설명 또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 박태보의 후회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B]에서 그러한 후회가 반복되었다는 설명 또한 적절하지 않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등에서 박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박태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민 중전이 내쳐지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민심이 박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고난과 시련 끝에 죽음을 맞게 된 박태보에 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부인의 꿈에 나타난 박태보는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라고 말하며,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에 구경 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박태보가 윤리적 명분에 있어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감 부부에게 전해진 편지에서 박태보는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훘이 되어’라고 하였다. 이것은 박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박태보는 편지에서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라고 하며 끝을 맺었다. 이를 통해 박태보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아이들이 부른 노래에서는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임금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며 신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 시가 - (가) 정훈, ‘탄궁가’ / (나) 위백규, ‘농가’

**지문해설 :** (가)는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결국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궁귀(가난 귀신)’와의 대화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며,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지문해설 :** (나)는 농가의 생활과 농사일의 즐거움을 진솔하게 노래함으로써 농부들의 생활상이나 생활 감정을 잘 드러낸 총 9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한자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촌의 일상어를 사용하여 노동의 풍경과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는 모습, 밥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하는 모습 등을 그려내고 있다. 농촌을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주제]** 농가의 생활과 농사일을 하는 즐거움

3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춘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가)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을 배경으로 하여 파종할 법씨도 부족하고, 끼니조차 잇기 어려우며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 곤란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나 거기에 조용하는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빼꾸기’는 봄의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 봄이라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에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 내용도 찾을 수 없다.

###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술에 후량(음식)’을 갖추고 화자가 ‘궁귀’의 이름을 부르며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전송하는 것은 화자가 의례에 따라 ‘궁귀’를 멀리 떠나보내는 예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B]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에서 화자가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면화는 세다래 네 다래요’는 풍성하게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빈천도 내 분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가난을 분수라 생각하며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농사를 짓는 화자와 ‘면화’, ‘벼’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서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는 화자가 ‘궁귀’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며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고, [B]의 ‘칠월이 반이로다’는 벼가 패어 곧 수확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영탄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원근 친척 내빈왕객은 어이하리 접대할꼬’는 화자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거나 죄책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올벼 씨 한 말’은 파종할 볍씨이다. 화자는 가난한 향촌 사대부로서 농사를 지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인데, 볍씨를 쥐가 반 넘게 먹은 상황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곡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해 솔 시루에 녹이 슬어 붉은 빛이 보이는 상황은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 앞의 ‘묵은 풀

---

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를 통해 농사를 위해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라고 하여, 예정된 차례대로 서로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해 협력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향촌 공동체의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설명과 연결할 때, 밥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제시한 ㉠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⑤ 37. ④ 38. ① 39. ① 40. ③ 41. ① 42. ② 43. ② 44. ⑤  
45. ③

[35~37] 화법

35. 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발표의 도입부에서 학생은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발표자가 읽었던 책과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주제를 정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석류탕과 난면을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음식 이름·음식의 재료 및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요약하지는 않았다. ②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은 자신이 발표한 두 가지 음식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음식디미방』을 읽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한 추가 자료 탐색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③ 석류탕과 난면의 조리법을 소개하고, 『음식디미방』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식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만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한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의 도입부에서 『음식디미방』이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며 책의 역사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36.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도입부에서 책에 대해 청중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다는 발표 순서를 제시한다. 이후 사진을 보여주며 청중들과 상호 작용한 후,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는 석류탕과 관련하여 먼저 소개하고 있다.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발표 도입부에 제시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석류탕과 난면이라는 다소 생소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음식이 『음식디미방』이라는 17세기에 쓰인 책에 나와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발표의 중간 부분에서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③ 발표의 도입부에서 『음식디미방』라는 책을 알고 있는지 묻고 난 후, 1670년경이라는 집필 시기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④ 석류탕이라는 음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의 이름’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난면

과 관련해서는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중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학생 1은 석류탕과 난면의 주재료가 꿩고기라는 설명을 듣고 이로부터 꿩고기가 구하기 쉬운 재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학생 3은 『음식디미방』에서 석류탕을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을 듣고 이로부터 석류탕의 꿩고기를 핵심 재료로 간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석류탕과 난면의 재료가 공통적으로 꿩고기였음을 언급하고 있지, 음식 재료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학생 2는 음식 재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② 음식의 재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석류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석류탕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은 것은 아니다. ③ 학생 3은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한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학생 2는 석류탕의 조리법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인 난면의 조리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2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비교하며 들었으며, 학생 3은 어육류에 속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며 들었다. 그러나 학생 2와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듣지는 않았다.

### [38~42] 화법 + 작문

### 38. 건의 글쓰기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가)는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내용을 제기하며, 주최 측인 학생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의문이다. 즉 (가)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회 운영진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작성된 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문제를 언급하며 주체인 학생회를 독자로 하여 예선 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가)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며 주최 측에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대한 성찰이 작문 목적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작문 매체를 선택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건의문 형식에 맞게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분석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 39. 건의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2문단은 시간, 공간, 운영할 인원, 심사자 확보 등의 문제로 예선 참가 인원을 한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2문단에서는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설문 조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는 ①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한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로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②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우리 학교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인근의 학교들 중에서 대면 토론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예선에서 토론 개요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교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④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⑤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0. 대화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예선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현행의 대면 토론을 토론 개요서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일정상의 문제로 예선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예선 기간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신 학생 3이 제안한 동영상 활용 방안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를 통해 (가)에서 제시한 토론 개요서 제출 방식과 학생 3이 새롭게 제시한 동영상 활용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가)의 내용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시간과 공간, 심사자의 부족 등의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현행 예선 방식이 현장감 있는 대면 토론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 1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얘기해 줄래?’라며 현행 예선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언에서 제외하도록 논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마지막 발화를 통해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참가 기회가 제한된다는 현행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 토론 개요서 제출 방안의 도입을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41.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은 ㉠ 직전에 학생 2가 말한 동영상 촬영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니 참가 팀들의 입장에서 번거롭다는 내용과 동영상을 심사하려면 대면 토론만큼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내용 중 후자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토론 개요서로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동의를 표한 의견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을 뿐,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심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 직전의 학생 3이 말한 내용 중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려워.’라는 말과 관련하여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논증 능력임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드러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 직전의 말에서 학생 3은 동영상 촬영을 활용하는 방식은 토론 개요서 활용 방안보다 심사자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서 이런 내용을 재진술하는 부분은 없다.

#### 42.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나)에 제시된 대안은 ‘토론 개요서 평가 방식’과 ‘동영상 촬영 평가 방식’이다. 이 두 대안에 대해 학생들은 장단점을 파악하며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영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심사자 평가 부담이 크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토론 개요서 방식의 장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에서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참가자들이 토론 시간이나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③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동영상 방식은 참가 팀들이 별도의 촬영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④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토론 개요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참가 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방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⑤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에서 토론 개요서 평가 방식으로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현장감 있는 대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이다.

[43~45] 작문

43. 정보 전달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초고> 2문단의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면’을 통해 질환 유병률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범주를 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초고>의 1문단에서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라고 하며 질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질환의 유병률과 관련하여 2문단에서 피아니스트 ○○○ 씨의 질환 경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건반 악기 연주자들의 사례이지 악기군별로 그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질환 완화 방법을 휴식, 운동, 연주자의 인식 개선 등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질환의 부위별로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적절한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운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44.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초고>와 <초고> 수정안을 비교하면, 수정안에서 <초고>의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정안의 둘째 문장 ‘주로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에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를 추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을 언급하고, 셋째 문장을 통해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원인도 역시 유사한 동작을 오래 반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업군, 즉 사무직의 사례를 삭제하였고, 장기간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손상 누적이라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무직의 요통 사례도 직업성 질환에 해당한다. ② 사무직의 요통 사례도 직업성 질환이며,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조건이 아니라 발병 이유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③ 질환의 발병 부위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발병 원인을 추가한 것이다. ④ 질환의 발병 유형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발병 원인을 추가한 것이다.

#### 45.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나-1)은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통계 자료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를 보면, 상지 부위의 경우 악기 연주자의 유병률이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82배, 현악기가 1.57배이므로, 유병률은 건반 악기, 현악기, 관악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② 전체 부위 유병률은 건반 악기가 75.0%, 현악기가 68.1%, 관악기가 57.6%로, 이는 상지 부위의 유병률의 순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지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72배, 현악기가 0.84배로, 건반 악기, 관악기, 현악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부위 유병률과 하지 부위 유병률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 (나-2)를 보면, 연습 중 휴식이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관악기는 51.2%에서 3.1%로, 현악기는 40.7%에서 19.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악기보다 관악기가 휴식을 하는 것이 유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는 질병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를 활용하여 스트레칭 운동, 안정화 운동 등의 운동 방법과 근육의 긴장 완화, 바른 자세로의 교정 등 그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